

## “유엔기념공원 2025년 세계평화공원 조성”



6월 20일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정책투어, 남구 비전선포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행사를 마치고 남구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주민 5만명이 서명한 동남권 관문광항 건설 촉구 주민 서명지를 박재범 남구청장이 오 시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 오거돈 시장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남구 비전선포식’ 서 밝혀

### 우암로~석포로 26번길 200m 도로 개설 20억원 지원도 약속

부산시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3,111억원을 투입해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부산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남구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남구 비전선포식’에서 취임 이후 남구를 처음 방문한 오거돈 부산 시장은 이같은

청사전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우암로~석포로 26번길 200m 도로 개설 사업에 시비 20억원 지원도 흔쾌히 약속했다. 트램 오륙도선 잔여 구간 3.25km(이기대 삼거리~오륙도SK뷰아파트) 건설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남구 비전선포식’에는 박재범 남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세계평화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평화공원, 대연수목원 등 기존 유엔평화문화특구의 개념과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밑그림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오 시장은 6월 25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69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

용사 추모제에서 부산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다시 언급해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세계평화공원 조성 외에도 부산시는 이날 △용호부두 일대에 극지타운 조성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같이 남구와 직결된 굵직한 청사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남구는 홍경희 부구청장이 발표자로 나서 ▲유엔평화문화특구 특성화 통한 평화도시 실현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문현금융단지 금융가점 육성 ▲해양산업을 러스터 활성화 ▲오륙도선·우암선(유엔평화선) 신고통수단 도입 등 다섯 가지 남구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 유엔기념광장 조성,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 부산외대 이전부지 조속 개발, 우암로~석포로 26번길 간 도로 개설, 문현동 생태숲 조성을 제시하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최와 대회사에서 위의 다섯 가지 현안 외에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공공기관 추가 유치 및 대연파크루트지오 아파트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한편 남구는 동남권 관문광항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 5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오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에 힘을 보탤다.

### 연결·균형·혁신 통해 부산을 환골탈태

#### ■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는

오거돈 시장의 ‘부산대개조 정책투어’는 16개 구·군을 차례로 방문해 민선7기 부산시의 핵심사업인 ‘부산대개조’에 관해 홍보하고 지역별 미래비전을 경청하는 자리로 지난 3월 12일 영도구를 시작으로 4월 11일 부산진구, 4월 17일 북구, 6월 3일 금정구, 6월 11일 중구에 이어 남구를 여

섯 번째 방문했다.

부산대개조란 민선7기 부산시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부산을 전지개벽 수준으로 통째 바꿔놓겠다’는 초거대 프로젝트이다.

부산대개조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로 단절된 도심 연결, 쇠락한 원도심을 복원하는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산을 스마트시티로 변화시키는 혁신이 세가지이다.



## 청년친화도시 종합대상

###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호평

## 전국일자리대상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 2018년 일자리 1만여개 창출… 부상 1억원 일자리 창출 재투자

남구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시도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한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남구는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의지,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항목에 대해 1차 시도 평가위원회와 2차 고용노동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구는 지난해 1만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그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4만7,989명이란 괄목할 만한 성과를 했다. 특히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클러스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해양일자리 창출과 인건비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취업이 절실한 청년을 연계한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 받았다.

또 관내 대학, 기업, 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인적네트워크 구축, 컨텐츠 개발로 청년의 취업유도한 청년일자리 창출, 문현 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연계한 4차산업의 핵심기술(핀테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부상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재투입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부산지역 2019 청년친화·현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에 남구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정책 개발, 제도개선, 청년교육 및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단위 청년관련 조직으로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에 힘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8명의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청년친화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책부문 △소통부문 △청년활동지원사업 △기타 특성화항목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청년 정책과 관련

해 △우수인재의 영입이 절실한 창업 기업과 취업이 간절한 청년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지역청정지원금(월세 30만원) 지원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대학과 청년이 어우러져 문화·예술·공예 콘텐츠 개발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그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해 창업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 JOB’ 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상인 틈새일자리 창출 ‘이기대 청춘열차’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롯데백화점·동아일보사가 협력해 운영해온 ‘청년드림 부산남구캠프’의 취업건설팀이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 남구 지방자치행정대상

### 지방자치단체 최고 영예… 트램 유치 등 성과

남구는 지난 6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행정대상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자치공헌 실적, 공약이행, 투명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남구는 전국 최초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유치,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주장을

전국 최초로 무료 개방, 소통과 섬김의 열린 구청 실현을 위해 구청장실 2층 민원실로 이전, 소통감사담당관실 신설하는 등 2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건설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재범 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많은 사업의 성과는 28만 구민의 협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으며 앞으로 남구가 미래 부산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범 남구청장 민선7기 1년을 돌아보며

### 지난 1년, 10년처럼 뛰었습니다

### 남은 3년, 백년대계 세우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구청장 취임 후 “언제나 사람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라는 글로 인사드렸는데 벌써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눈에 댈 만큼 머리술이 줄어든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동안 우리 남구는 대한민국1호 트램 오륙도선 유치,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 청년친화·현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1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SA등급(최고등급) 등 반가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주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지난해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대면한 것은 초대형 태풍 뿌라뽀룬 북상입니다. 구청에서 직원들과 재해 우려지역을 순찰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태풍은 부산을 비껴갔지만 이어지는 재개발 민원으로 주민분들이 새벽까지 구청장실을 점거하기도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취임하자마자 “구청장 물러나라”는 말을 듣고 당황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남구는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또는 준비 중인 곳이 41곳으로 부산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주민 갈등의 골이 깊은 지역도 많아 구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문입니다만 부산시 건축과 직원들도 남구로 전근 오는 것을 기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쯤에는 완공을 앞둔 용당동 레미콘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집회현장 속에 들어가 주민들의 억울한 마음 잘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10개월 동안의 진통과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중재하는 조건으로 최근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들 참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합니다. 양보도 하고 구정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공모에는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에 제가 피하기보다는 주민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구청장실을 정문이 위치한 민원실로 옮겨 문턱을 낮추고 행정의 허점을 짚어볼 수 있는 소통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해 주민 민원을 세심히 살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부산남구신문을 12면으로 증면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 구청 공식 SNS도 활성화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구의 현안 그리고 구청장의 활동 내용을 꾸준히 알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 인제든 환영합니다.

특히 주민분들의 제안으로 여름철 교차로 그늘막, 겨울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와 온열의자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에 올해는 더 확대 설치합니다.

대형토목사업보다는 등산로 정비, 공원 내 에어건 설치, 악취터 인근 정비 등 세심한 행정에서 오는 주민 만족감이 크다는 것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남구 쓰레기 봉투 가격도 인하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난 1년을 발판삼아 이제부터는 차곡차곡 준비한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구는 남구 골목화제 발행, 주식회사 남구미래 설립, 2030등목 엑스포 연계 사업 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문현금융단지 금융기관 추가 유치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아 낼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육아지원센터,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역시 곧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고집스러운 만큼 초심 잃지 않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우리사회에 발 빠르게 맞춰나가는 기회주의자도 되겠습니다. 잘 해낼 자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주신 마음 실망시키지 않게 우리 주민만 보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하겠습니다.

유월 어느날 박 재 범 올림

### 남구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하세요

#### 구청장실 직통전화 운영 구청장이 직접 경위 파악

남구는 부패 척결 등 청렴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7월 1일부터 구청장실에 직통 부정·부패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전화는 부정·부패 전용 신고전화(☎ 636-0188)로 누구나 금품수수, 향음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부정·부패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 폭염 대비 관내 무더위쉼터 늘린다

### 새마을금고 15곳 등 추가

김수록 평균기온이 오르고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는 가운데 남구는 올 여름부터 기존 경로당 및 복지관만으로 운영되던 폭염 무더위 쉼터 86곳에서 새마을금고와 관공서를 포함해 총 10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추가 지정된 관내 새마을금고 15곳의 경우 운영기간은 7월 15일~8월 31일 45일 간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업무시간(09:00~16:00)에 기온이 최고로 상승하는데다 기존 무더위쉼터들보다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청 1층 쉼터에 접이식 의자, 선풍기, 생수, 눈꽃·자작나무 벽지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시원한 효과를 봤다. 남구는 변경 외에도 시설사업소·동 주민센터 등 4곳에 쉼터를 운영한다.

한편 남구는 무더위쉼터 외에도 폭염 그늘막 확대설치, 도시 열섬화 방지 살수차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실시, 폭염 상황관리 T/F팀 구성, 취약계층 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607-4644

### 지 면 안 내

참전용사 미망인의 마지막 소원 5면

남구 대규모 주택사업 현황 7면

전국노래자랑 녹화 막전막후 10면

이기대는 반딧불이 천국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남구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7월 1일부터 남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9종(재사용 2종 포함) 가격이 내린다. 인하폭은 10ℓ는 430원에서 390원, 20ℓ는 850원에서 770원 등으로 규격별 9~10% 내외이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종량제봉투는 7월 1일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마대는 가격 변동이 없다.

한편, 7월 1일부터 전국 타 시도에서 남구로 전입하는 세대가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도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전

#### □ 종량제 봉투가격 인하 내용

용 도	규격	기존가격	인하가격
일반종량제봉투 (재사용 봉투 포함)	5ℓ	220원	200원
	10ℓ	430원	390원
	20ℓ	850원	770원
	30ℓ	1,280원	1,150원
	50ℓ	2,070원	1,860원
	75ℓ	3,080원	2,770원

입지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해당 종량제 봉투에 인증용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매수는 세대당 10매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